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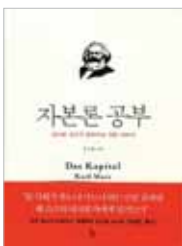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과학 이야기
김성철 지음

과학속에서 붓다 진리 찾기

과학과 불교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해 과학 속에서 붓다의 진리를 발견하는 교양 과학서가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인 김성철 씨가 펴낸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붓다의 과학 이야기'는 진화생물학과 뇌과학, 불교를 토대로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붓다의 중요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과학 가운데 쉽지 않은 깨달음을 주는 과학 이야기 47가지를 모았다. 종교서적인 동시에 과학 서적의 성격을 지니는 이유다. 저자는 다윈의 진화생물학에서 최신 뇌과학의 성과까지 총동원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비밀을 명쾌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긴 비밀'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목구비가 얼굴에 물러 있는 이유는 동물, 즉 우리들 인간의 몸에 자신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탐욕의 동물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기술돼 있어 쉽고 간결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글세상·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본론 공부
김수형 지음

원전 '자본론' 현대적 해석

한국사회 문제와 세계 문제를 '자본론' 이론에 대입해 150년 전의 칼 마르크스의 메시지를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한국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수형 씨가 펴낸 '자본론 공부'는 원전 '자본론'의 중요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 10번의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한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진 특강에는 직장인들을 포함한 젊은 학생들 이 대거 참여해 자본주의 사회 이면에 드러워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저자는 도표와 그림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고전을 현재의 시간대로 끌어올렸다. 단순히 '자본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머물지 않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비판하고 긍정했는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뒀다. <돌베개·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간 내면에는 폭력을 제어하는 천사가 산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 지음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의 세계'가 '오늘'보다 더 나았다고 믿는다. 지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만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다.

잠시 휴전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동 간의 뿌리 깊은 갈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내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충돌,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등 세계는 조금도 평화롭지 않다. 20세기에 벌어졌던 두 번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는 지난 세기가 가장 폭력적인 시대였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더욱이 이 믿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도 폭력에 물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배가시킨다.

과연 그럴까? 인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명백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오히려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비폭력적이며 안전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인지 과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핑커(하버드대 교수)




는 '폭력을 둘러싼 통념'에 도전한다. 그가 펴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깨뜨린다. 저자는 '낭만화 된 과거', '악마화된 현대'라는 이분법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폭력 가운데 일부는 잔학성 기준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일 폭력 사건을 틈틈이 다루는 미디어의 영향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 변화를 겪은 탓에 폭력이 늘 상존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한 저자의 시선은 매우 역동적이다. 기원전에서부터 근대어까지, 그리고 자료 또한 성경과 당대 문학 작품을 넘어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에까지 닿아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어제까지의 세계'는 결코 지금과 비교해 평온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수렵 채집 시기의 부족 간 전쟁, 개인 대 개인의 복수는 지금보다 훨씬 빈번하고 잔혹했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와 중세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는 학살, 강간, 약탈, 전쟁의 포악함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자장가에서조차 매질을 하고, 굶기고, 학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저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모두 다섯 가지의 악마가 자라고 있다고 설명한

다. 포식적 폭력, 우세 경쟁, 복수심, 가학성, 이데올로기로, 이는 인간을 폭력 상황으로 모는 근본 동기라는 것이다.


다행히 저자는 오히려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폭력과 멀어지게 하는 심리적 능력들, 다시 말해 '악마'를 억누르는 선한 천사 네 가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감정입입, 자기통제, 도덕 감각, 이성 바로 그것인데 이 네 '천사'가 협동과 이타성, 평화를 추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한 천사들이 내면의 악마를 억누르도록 다각도로 돕는 요인도 있다고 강조한다. 리바이팅(통제하는 정부), 상업, 여성화, 세계주의, 이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요인은 선한 천사를 견인하는 인간 본성의 중요 기제다.

“옛 세대들이 폭력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의 인류는 덜 잔인하며 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산다.” 저자가 과학적 분석과 통찰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천사와 악마가 산다고, 어느 쪽에 풀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당신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고. 물론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사이언스북스·6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노야·무제시편... 고은 문학인생 길어올린 수작들



시의 황홀
고은 지음

“파도는/ 지는 해를 가장 사랑한다/
파도는 뜨는 달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그 이상을 모르고 돌아온다” <‘무제시편 369’> 중

고은 시인은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문학의 거장이다. 영국의 BBC 등 외신은 그를 일컬어 한국의 ‘국민시인’이라 부른다. 아마 그의 시가 이

해받고 규명되기보다 먼저 사랑받기 때문인지 모른다.

고은의 시 가운데 100편을 선정, 위로와 창조와 메시지가 돋보이는 시구들을 발췌해 엮은 '시의 황홀'이 나왔다.

문학평론가 겸 소설가인 김형수 씨가 엮은 이번 신작은 고은의 반세기 문학인생에서 길어올린 수작들이 모두 들어 있다.

책에 수록된 시구는 1958년 '현대문학' 특단차 '천은사운'부터, 가수 양희은에 이어 재즈가수 나윤선이 노래해 큰 사랑을 받았던 '세노야', 현대시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써내려간 '구름에 대하여', 2013년 만 여든의 나이에 집필한 607편의 시가 담긴 '무제시편'의 주요작

까지 아우른다.


시에 대한 해설은 엮음이 김형수가 맡았는데, 그는 고은 시인의 진의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고 섬세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는 예전 고은 시인 등단 50주년 기념집을 묶을 때, 고은 문학의 요체를 "50년 동안의 사춘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번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고은 시집과 달리 광고 출판계에서 주목받는 실력과 일러스트레이터 조성민이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려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데 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기술이 준 편리한 삶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



유리감옥
니콜라스 카 지음

세계적 디지털사상가인 니콜라스 카는 신간 '유리감옥' <한국경제신문>에서 “왜 기술이 발전할 수록 인간은 무능해지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가 내놓은 답은 “기술이 준 편리한 삶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연방항공국은 “적절한 때에 조종사들이 수동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자동 조종장치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비정적인 상태에 놓인 비행기를 원상회복시키는 능력이 저하돼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본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